

## 2000년대 한국 대중영화를 통해 바라본 사회·정치적 담론과 미디어적 현상 연구\*

- I. 들어가며
- II. 200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흐름
- III. 영화의 사회·정치적 재현
- IV.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김민수, 한화성, 김건

### 초 록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는 천만 관객 동원과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성공에 힘입어 산업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소재로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가 다루어지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외형적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상업영화의 발전은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 속성과 다양한 대중의 속성을 파악하여 만든 웰메이드(well made)영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디어적 현상이 주원인일 것이다.

한국 대중영화가 영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미디어 매체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많은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대중영화의 파급력을 인지한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사회·정치적으로 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중문화 연구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작가(예술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가 대중영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과 계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빈번한 정치, 사회, 역사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형성한 대중영화와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논의는 대중영화의 폭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편향적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회·정치적인 영화보거나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대중 영화, 천만관객 영화, 영화와 사회, 정치적 영화와 미디어, 소셜 미디어.

## I. 들어가며

199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의 발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sup>1)</sup>,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총 영화 관람객 수가 연속해서 2억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영화가 대중문화 산업 속에 안착했다는 지표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영화가 대중문화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상업영화의 발전은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 속성과 다양한 대중의 속성을 파악하여 만든 웰 메이드(well made)영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디어적 현상이 주원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열등한 것,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는 대중사회에서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문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영어로 Mass Culture라고 표현하는 대중문화는 주체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열등한 집단이라는 냉소적인 뜻으로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문화 산물로 규정한다. 또 하나의 대중문화인 Popular Culture는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소비, 민중적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자의 대중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중문화 연구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소셜 등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표현한다. 이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작가(예술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대립적인 면에서 세계 한다.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작

\* 본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최봉현 외,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영화진흥위원회』, 2005, p.83.

2)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p.24.

품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담론 또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소설 등의 텍스트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함의적이라기보다 대립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나쁘든 좋든 연극은 항상 세상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관객의 성향과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 연극이나 극장 공연은 없다.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예술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주장은 모든 문화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sup>3)</sup> 다시 말해 모든 텍스트들은 사회·정치적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각의 텍스트들은 세상이 어떠하다 혹은 어떻게 인식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낳게 한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문화이론처럼 ‘집합적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장’ 이고 독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작용의 정치(the politics of signification)이다.<sup>4)</sup> 또한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에,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재현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네 사회적 관계망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2000년대 대중영화의 흐름, 즉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과 검열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의 논의는 대중영화의 폭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다음, 대중영화와 미디어 상호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정치적인 성향과 문제를 분석하여, 각각의 영화를 통해 형성된 사회·정치적 변화를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사회·역사를 다룬 대중영화가 형성한 사회적 담론과 이것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편향적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회·정

3) Bertolt Brecht, *On Theatre*, trans. by John Willett, London : Methuen, 1978, pp.150-151. 존 스토리, 박만준 역,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경문사, 2002, p.4. 재인용.

4) Stuart Hall, *The rediscovery of ideology : the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Sub-Jectivity and Social Relations*, Veronica Beechey & James Donald(eds.), Milton Keynes : Open University Press, 1984, 36쪽. 존 스토리, 앞의 책, p.5. 재인용.

치적인 영화보거나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문하고자 한다.

## II. 200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흐름

주지하다시피, 한국 영화시장은 아무리 의미가 깊고 가치 있는 소재의 영화라 해도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상업적 특성이 강한 영화에 밀려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영화는 영화 자체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영화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면 흥행에 참패한다.” 라는 속설이 한때 충무로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평론가들에게 인정받은 작품은 관객에게 외면 받는다.” 라는 우려 섞인 말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활용한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1999년에 상영된 강제규 감독의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쉬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남북분단 문제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영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동시에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한국영화의 대중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쉬리>가 작품성과 흥행 성공이라는 첫 포문을 열며 한국영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지 1년 후, 그 뒤를 이어서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박찬욱, 2000)은 한국영화산업의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해주었다. 영화는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에 대한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작품성 혹은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칭찬 일색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두 영화의 연속적인 흥행 성공은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기획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된다.

2001년에는 영화 <친구>(곽경택, 2001)가 크게 성공하며 한국영화의 신(新)르네상스가 시작됨을 알린다. 제작 순으로 나열하

자면 1999년 <취리>, 2000년 <JSA 공동경비구역>, 2001년 <친구>(곽경택, 2001) 계보로 이어지는 한국영화는 3년 연속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화 <친구>는 노스탤지어(Nostalgia) 코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 엄청난 호응과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평론가들로부터는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특히 부산 지역을 필두로 돌풍을 일으키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8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로 한국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웠다.<sup>5)</sup> <친구>는 수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며, 대중문화로서의 영화적 흥행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 열기는 복고와 노스탤지어라는 향수(鄉愁)를 코드로 하는 유행으로 이어졌다. <친구> 신드롬은 몇 달째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sup>6)</sup>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조폭을 미화시키는 서사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 한 학생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모방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자, 줄곧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던 언론들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연일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를 내보냈다. <친구>의 조폭 이야기는 조폭을 찬양하고 조폭문화의 폭력성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방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

5) <친구>의 관객 동원 수는 약간의 집계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의 관객 수 집계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위 영화의 관객을 지방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영화관련 구입처에서 직접 관객 수 집계를 관리했기에, 중앙에서 지방 관객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친구> 관객 수의 일반적인 통계 수치는 820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6) 최근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물처럼 친구에 대한 우정과 80년대의 배경은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40~50대의 교복세대 뿐만 아니라 젊은 20대까지, 관객층의 스펙트럼은 폭넓었다. 노스탤지어의 유행은 서울 흥대 주변과 인사동의 작은 가게에서도 변화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속에 등장했던 70~80년대 소품인 회수권, 딱지, 구슬, 불량식품 등 수많은 물건들을 전시·판매하는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그 주변 식당에서는 계란과 김치볶음을 넣어 만든 추억의 도시락이라는 메뉴가 등장했고, LP판 음악을 들길 수 있는 추억의 찻집이 곳곳에 들어섰다. 또한 제주도의 영화박물관에서는 <친구>의 주연배우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까지 설치하는 등 <친구>로 촉발된 복고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였다. 이처럼 미디어들은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담론을 연신 보도했으며, 관객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형성한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은 이전처럼 영화를 단순한 텍스트로(text)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의 사회, 정치를 함께 반영하는 콘텍스트(context)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에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의 큰 관심을 받게 된 한국영화의 흐름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블록버스터 제작에 큰 영향을 끼치며, 대중성의 콘텍스트 속에서 읽혀지기 시작한다.

### 1.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 : <쉬리>를 시작으로

한국영화가 대중문화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소재의 다양성,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 사회·정치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 특히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출현은 대중성에 기반을 둔 상업영화의 관객홍행으로 이어진다. 먼저 1990년대 말 <쉬리>가 30억 원이 넘는 제작비와 10억 원이 넘는 홍보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면서 한국영화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등장하며, 전국관객 62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당시 한국 영화 편당 제작비가 5-6억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40억이라는 총 제작비는 경이로운 액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최고로 흥행한 영화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쉬리>의 흥행 성과는 말 그대로 초대박을 이룬 성과였다. 당시에 집계된 관객 수를 살펴보면, <투캅스2>(강우석, 1996)가 64만, <편지>(이정국, 1997)가 72만, <접속>(장운현, 1997)이 67만을 기록했고, <넘버3>(송능한, 1997)는 서울 관객 30만 명, <약속>(김유진, 1998)이 70만,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1998)가 4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쉬리>는 타 영화들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다른 양상의 흥행신화를 기록하며, 한국영화의 규모 및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기대치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쉬리>가 남녀의 사랑이라는 멜로라인을 바탕으로 상업영화에서 금기시되던 남북분단의 소재를 다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이전에 남북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유사 소재의 영화는 반공영화이거나 편향된 이데올로기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쉬리>가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의 대표작이었던 <타이타닉>(제임스카메론, 1999)이 세운 450만 명이라는 흥행기록도 갱신했다는 점이다. 그 이전의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은 항상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쉬리>의 성공적인 흥행기록으로 인해 ‘한국형 블록버스터’ 라는 용어가 탄생하며 할리우드 영화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안겨주었다.

이러한 흐름은 3년 후 영화 <실미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미도>(강우석, 2003)의 제작사는 순제작비 83억 원과 홍보마케팅비 27억 원, 총 제작비 110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이라고 여겨지는 규모의 투자를 하였다. 영화개봉 전 첫 시사회에서 강우석 감독은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첫 작품이 될 것”<sup>7)</sup> 이라고 했지만, 이는 그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수치였다. 이 수치를 1999년 <쉬리> 620만, 그 2년 후인 2001년 <친구> 820만, 다시 2년 후의 2003년 <실미도> 1,000만이라는 연속 선상에서 본다면 실현가능한 수치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영화 흥행성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이라는 말처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실미도>를 기점으로 한국영화는 한국형 최초 블록버스터 <쉬리>에 이어 두 번째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성공과 함께 1,000만 관객 시대를 활짝 열어 놓는다. 그러나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쉬리>이후 4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강제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는 <실

7)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이었던 <실미도>는 불과 개봉 15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1,100만 관객동원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한다. 김규한, 「<실미도> 천만 관객시대를 열다」, 『맥스무비』, 2004년 02월 19일.

미도>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우며, 이른바 1,000만 관객 동원이 우연이 아니며 한 번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흥행 기록이라는 한국영화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기점으로 두 번째 한국 1,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이제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 한국형을 빼고 ‘한국블록버스터 영화’ 라는 용어가 탄생된다.<sup>8)</sup> <태극기 휘날리며>는 순제작비 148억 원, 마케팅비용을 포함한 총제작비 170억 원으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한국영화사를 다시 쓴 블록버스터였고, 개봉관 수도 사상 최대 규모인 440개에 달하며 1,170만 명 관객 수라는 한국역대 신기록을 다시 세웠다.<sup>9)</sup> 이처럼 연속적인 한국대중영화의 1,000만 관객 기록과 이로 인한 한국영화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당시의 대중적 기호에 걸 맞는 소재의 다양성 추구와 블록버스터영화 제작 아래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에 대적할만한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제작의 자신감 획득이라는 중요한 기점이 마련되는 시점이었다.

이처럼 <쉬리>, <살미도>,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분단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원천으로 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는 이후 액션과 멜로를 결합한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들로 계승된다.<sup>10)</sup>

## 2. 검열제도의 변화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검열 논란의 대상이었던 영화상

8) 이희승에 따르면,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원형으로 취하여 할리우드의 안정된 약호(codes) 및 관습(convention)과 한국적 문화 코드를 접합하는 전략을 취한다. 전자는 한국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러티브나 장르적 특성을 보완해주면서도 흥미 있는 스펙터클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객 점유율을 담보해주고, 후자는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부합한 내용들을 이식함으로써 할리우드와 차별화된 콘텐츠적 기능을 부여해준다.(66쪽)” 이희승,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식민주의적 욕망」, 『영상기술연구』, 2010, pp.65-90.

9) 유재혁, 「<태극기 휘날리며> : 제작비 170억. 총440곳」, 『한국경제』, 2004년 02월 05일.

10)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한국블록버스터 영화로의 변화는 다음의 논문 참조바람. 김병철,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빛과 그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학술정보』, 2005.



영 전 공연윤리 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규정인 영화법 제12조 사전검열제에 대해 재판부의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2002년에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로 ‘제한 상영가 등급’ 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지만, 이 또한 2008년 제한 상영가 등급은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고 2009년 법률 개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sup>11)</sup> 현재 상영등급은 분류된 등급에 따라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 5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판결로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에서 영화 심의는 부분 수정이나 삭제를 배제하고 상영등급의 여부로 변경되었으며, 등급의 구분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6개월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영등급 부여 보류 기준(제 13조의 3관련)’ 이라는 10가지 규정 중 가장 민감한 소재인 국가, 범죄, 역사와 관련된 3가지 규정을 예로 들면서, 동시에 해당 법이 존재했다면 제작될 수 없었던 2000년대 대표적인 대중영화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또는 국기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계속 존재했다면 영화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2005)은 처음부터 기획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박 전(前)대통령의 아들 박씨가 현대사의 비극적 사안을 허위사실로 그려 고인 및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화 상영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박씨가 청구했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대신 소송은 영화제작사 측의 부마항쟁, 장례식 등 마지막 부분의 다큐멘터리 몇 장면

11) 원미란, “영상물등급제도 및 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p.21.

(3분이 넘는 분량)의 삭제와 검은 화면 처리로 일단락되었다.<sup>12)</sup>

둘째,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영화는 주로 갱스터 영화나 범죄영화를 포함하는 느와르(noir) 영화 계열이다. 예컨대, <범죄의 재구성>(최동훈, 2004)은 한국은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50억 은행 강도이야기이며, <도둑들>(최동훈, 2012) 역시 다이아몬드(태양의 눈물)을 훔치려는 강도단이야기이다. <무방비도시>(이상기, 2008) 또한 기업형 소매치기범에 관한 이야기이다. 위의 규정이 존속한다면 이런 부류의 영화들도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영화 <황해>(나홍진, 2010)의 살인을 하는 장면이나 도구 등의 잔인성으로 보면,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영화들도 두 번째 규정과 영화의 존치(存置)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특정의 사람, 사실 또는 물건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된 바를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이다. <실미도>는 위의 규정에 포함되는 원조 격의 영화이다. <실미도>는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하는 영종도에 인접한 섬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았던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이다. 역사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영화가 실제 역사의 역사성을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서울 침투 사건인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남한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을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684부대’ (정식 명칭 2325전대 209과전대)를 설립하게 된다. 1999년에 백동호는 소설 『실미도』를 발표하고, 이 소설을 각색하여 제작비 82억을 들여 만든 영화가 <실미도>이다. 당시에 영화 <실미도>가 세간의 집중을 받게 된 이유는 블록버스터급의 대작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684부대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이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영화의 내용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영화 내용 중 71년 8월 북과공작을 목적으로 실

---

12) 임범, 「 ‘그때 그 사람들’ 3장면 삭제결정, 다큐 가위질 », 『한계레』, 2005년 01월 31일.

미도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리다 자폭한 사건 자체는 사실이었고,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한 무장공비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공군이 관리하던 특수범이 벌인 ‘군 특수범 난동 사건’이라고 정정했다.<sup>13)</sup> 영화에서 주인공 강인찬(설경구)을 비롯한 무기수, 깡패 등의 범죄자 캐릭터들은 픽션으로 사실은 684부대원의 40~50%정도는 일반인이었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이 버스를 탈취해 청와대로 가는 도중 폭파하여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4명이 살아남서 나중에 군법재판을 통해서 모두 사형 당했다. 이처럼, 이러한 역사를 기초로 실제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은 픽션인가 허구인가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종종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sup>14)</sup> 아무튼 영화법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실미도>와 같은 유사한 부류의 영화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 Ⅲ. 영화의 사회·정치적 재현

#### 1. 영화와 사회

프랑스 시적리얼리즘의 모토였던 ‘영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라는 경구처럼, 영화는 당시의 사회상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또한 “영화와 사회학은 필연적으로 교차한다”라는 프란체스코 카세티(Francesco Casetti)의 언급처럼<sup>15)</sup>,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영화도 영화의 사회적 표현 가

13) 박주연, 「영화 ‘실미도’ 어디까지 진짜야」, 『주간경향』, 2004년 01월 29일.

14) 최근에 배설(김원해) 장군의 후손들이 감독, 작가 그리고 원작 소설가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영화 <명량>(김한민, 2014) 역시, 역사적 인물을 다뤘다가 소송까지 휘말렸던 영화이다. 예컨대, 박종성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그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이 거짓 같은 삶의 세계 속에서 정치와 영화가 서로 공모할 수 있는 ‘비현실성’의 폭을 넓혀주기만 할 따름이다”라고 언급한다. 박종성, 『정치와 영화』, 인간사랑, 1999, p.11.

15) 프란체스코 카세티, 김길훈/김덕수/김건 역, 『현대영화이론 : 1945-1995년의 영화이론』, 한국문화사, 2012, p.152. 또한 피에르 솔랭(Pierre Sorlin)은 “역사학자들은 영화가 20세기의 모든 연구에서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인정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할 필요는

능성에 주목하며, 실제 사회적 사건에 기초한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살인의 추억>(봉준호, 2003)은 공소시효기간 연장 및 폐지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실제 일어났던 어린이 유괴사건을 다룬 <그놈의 목소리>(박진표, 2007),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영화화한 <아이들>(이규만, 2011) 등의 영화들이 제작된다. 영화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적 해석과 변화를 가져온 영화로는 <도가니>(황동혁, 2011)와 <부러진 화살>(정지영, 2012)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 보이는 영화는 수많은 사회적 담론들을 재생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는 작업을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은 대중영화의 사회 고발적 관심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생산으로 이어지고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리얼리티를 부각시켰다. 특히 젊은 층의 관객들은 자신이 본 영화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물론, 영화는 대중영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등 영화제작의 성격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관객은 영화 속 ‘진실’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회적 영화들은 ‘진실과 정의’라는 소재와 ‘사회약자와 부조리에 대한 사회비판’적 주제에 기반을 둔 사회 고발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데 영향을 주었고, 영화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공정, 정의 등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예로 다음에 소개하는 2편의 영화를 통해 이들 영화로 인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

---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영화가 리얼리티로 나오는 창이라고 생각한다. [...] 다른 역사학자들은 영화가 비추는 것은 사회적 데이터와 그 재현 사이의 거리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한다. 피에르 솔랭, 정진혁 역, 『유럽영화와 유럽사회 : 1939-1990』, 도서출판 씨앗가게, 2000, pp.14-15.

게 되었던 사회의 몇 가지 담론 현상에 대해 고찰해보자.

### 1) 부당한 권력 :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은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한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김경호는 대학 입시 시험의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에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한 사건이다. 이는 사회 고발적 성격의 영화로 사법계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이며 실화에 바탕을 둔 법정영화이다. 일명 ‘석궁사건’으로 불린 이 영화는 주제는 무거웠지만 감독의 절제된 영상미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며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차근차근 사건을 쫓아가며 몰입하게 한다. 특히 재판공방의 장면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리얼리티가 살아 날 수 있었다. 영화를 관람한 네티즌들은 영화를 통해서 느꼈던 사법부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사회 참여 방법으로 소셜 활동을 벌이며 미관람자들의 영화 관람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소셜 활동은 사적인 영역인 소셜이 하나 둘씩 모여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재생산되어지며, 중요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었다. 즉 트위터에 자신들의 견해와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영화가 보여준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촉구하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한 ‘실제 사건’에 대한 영화적 재현의 문제를 양산해낸다.<sup>16)</sup>

### 2) 인권 유린 : <도가니>

<도가니>는 2011년 개봉하자마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광주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5년간 교장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이 청각장애아들에게 자

---

16) 이성욱·목혜정,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 영화 <부러진 화살>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2 상반기 종합학술대회자료집, 2012. pp.145-156. 본 논문은 실제 사건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관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인식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다.

행한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실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9년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 『도가니』로 인해 다시 부각되었고, 2011년 영화가 개봉된 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장애인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다. 영화 개봉 후,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던 이유는 당시 가해자들이 받은 가벼운 형량이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가해자인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사 등은 제대로 된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성폭행을 자행했던 가해자는 이후 복직까지 이루어졌다. 반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이 되었다.

<도가니>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사법부의 불신, 전관예우의 폐단, 공무원과의 결탁,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학교와의 은밀한 불법거래 등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과연 ‘권력자와 소수 약자가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수많은 관객과 미디어의 관심은 입소문과 각종 소셜 커뮤니티에까지 널리 퍼지며 점점 더 관객몰이로 이어갔으며, 460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하는 동력이 되었다. 영화 <도가니>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것도, 스타급 배우가 캐스팅된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장애아동에 관한 영화였지만 성적인 장면과 폭력적인 잔인한 장면으로 인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객 수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광주인화학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운동까지 일어났고 당시 집권당이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명 ‘도가니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영화와 정치

영화와 정치와의 관계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화운동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폭넓고 다양한 토론의 장을 형성했다. 그 시기의 영화는 투쟁의 도구이고 대립의 지점이었으며,

1968년은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sup>17)</sup> 프란체스코 카세티는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지식인과 민중을 응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치적 참여의 성향을 드러낸다.” 라고 언급한다.<sup>18)</sup> 또한 김형준은 “영화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선거정보를 수집한다.” 면서 “기득권에 대한 저항, 특권. 차별 없는 사회 등의 주제가 선거공약으로 이어질 때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다.<sup>19)</sup>

이러한 경향은 최근 국내 영화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쟁적으로 영화관을 찾고, 미디어들은 영화와 정치인을 관련지어 보도를 하고 인터뷰 기사를 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과 독자들은 정치인이 선택한 영화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정치인의 의식과 그의 성향을 판단하기도 한다. 정치인이 정치·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처럼 여겨지고,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기사화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예컨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영화 <화려한 휴가>(김지훈, 2007)가 상영되었을 때, 대다수의 미디어들은 영화의 정치성에 주목하며 이를 기사화하였다.<sup>20)</sup> 2012년 4월 11일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때마침 정치색이 짙은 영화들이 개봉되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남영동 1985>(정지영, 2012), <26년>(조근현, 2012), <광해>(추창민, 2012) 등을 들 수 있다. <남영동 1985>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

17) 카세티에 따르면, “영화이론 분야에서도 68년은 이후 10년간 지속될 논쟁이나 관점이 한정되어 있지만 의미 있는 논쟁의 시작을 알리며, 향후 중요한 연구배경이 된다.” 프란체스코 카세티, 앞의 책, p.258.

18) 프란체스코 카세티, 앞의 책, p.259.

19) 강주리, 「영화와 선거의 함수관계... 야당 ‘부러진 화살 띄우기’, 『관혼저널』, 122호, 2012, p.103.

20) 17대 대선 여당 예비후보자 김두관, 이해찬, 한명숙, 손학규, 정동영 등이 영화관을 찾아 지지층 결집과 표심 잡기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그해 6월의 민주화항쟁의 발단이 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26년>(조근현, 2012)은 만화가 강풀의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복수극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7년과 2012년 대선시기에 상영되었던 영화 <화려한 휴가>와 <광해>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담론과 미디어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화려한 휴가>

영화가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화려한 휴가 >만큼 정치적 메시지가 크게 부각돼 사회·정치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도 드물다. 2007년 12월 19일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었고, 대권과 대선 열기가 불기 시작할 즈음인 그해 7월, <화려한 휴가>가 상영되었다. 각종 미디어들은 이 영화에 대한 논평에 적극적이었고, 당시 현직 대통령의 영화 관람 소식도 전해졌을 정도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소재로 한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가 정치관련 사항과 정치인의 성향,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기사에는 대통령의 영화 관람 장소와 관람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었고, 언론보도는 <화려한 휴가>의 정치성으로 인한 대선에 대한 영향을 논하며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언론은 <화려한 휴가>의 대척점에 위치한 영화로 만년부장인 셸러리맨의 애환을 그린 <브라보 마이 라이프>(박영훈, 2007)를 언급하며 이를 관람한 정치인들의 행보를 기사화하였다.<sup>21)</sup> 홍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 홍보를 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화려한 휴가>에 맞선다는 대결 형태의 보도는 영화 홍보전과 정치 홍보전의 혼동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1) 송현경, 「범여권에 ‘화려한 휴가’가 있다면 이명박에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있다?」, 『내일신문』, 2007년 09월 07일.



## 2) <광해>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광해>는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봉당정치로 혼란했던 시기인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암살 위협에 시달린 광해(이병헌)을 대신한 왕과 똑같이 생긴 천민 하선(이병헌)이 15일 동안 왕의 대역을 맡으며 벌어지는 팩션(faction)영화이다. <광해>는 야당 대선 후보자로 떠오른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관람을 하면서 미디어에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 영화를 대하는 미디어 매체들의 보도 형태는 2007년 대선과 맞물렸던 <화려한 휴가>보다 더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이때부터 미디어들은 영화의 정치적 파장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와 언론의 관심과 집중은 <광해>에 들어서 더욱더 자신들의 시각으로 영화와 정치성을 연결하고 심지어 정치인들의 영화 감상 인터뷰까지 자세하게 보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자가 <광해>를 보면서 고(故) 노대통령을 회상했다는 기사에서는 영화 속에서 광해 노릇을 하고 있는 하선의 극에 달한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 외척세력에 대한 경계에 대한 조강지처에 대한 신의, 대동법 실행에 대한 의지 등의 에피소드가 노대통령 정권 당시 정치 이슈화 되었던 일련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다. 실제로 진짜 광해군보다 대역인 가짜 광해군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서민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진정한 선정의 정치를 펼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호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디어 보도들은 영화의 내용 설명이나 영화평론이 아닌 이 영화를 관람한 정치인과 그들의 관람평을 마치 홍보성 카피 글처럼 기사화하였다. 미디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와 정치를 미디어 담론에 끌어 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광해>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의 불씨는 진보와 보수의 논평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어 갔다.<sup>22)</sup> 정치와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보도하는 언론 보도의 행태는 네티즌들

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화와 정치가 상생하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분명 영화를 통해 지향해야 할 미래에 대한 변화와 발전 방향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기사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미디어와 언론의 보도는 영화내용보다는 정치인의 동향에 대한 기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졌다.

### 3. 영화와 사회·정치 그리고 미디어

최근 몇 년 전부터 선거를 전후로 개봉한 영화를 이념 논쟁 속으로 몰아가는 미디어의 보도 형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미디어의 영화에 대한 보도 형태는 해당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들은 딱딱하고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소개하는 대중영화는 이슈화의 크기만큼 기대 효과도 크다. 그들이 이미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은 천만 관객 동원의 영화를 보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론 형성과 지지자의 결집 그리고 충성도 강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미디어들은 각각의 이념적 논쟁을 파급 효과가 큰 대중문화인 영화를 통해서 확대시키고 있다. 영화는 대중문화 중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주 소비층은 어른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들이다. 영화를 소비하며 파급효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젊은 층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며 담론의 중심에 놓이기도 한다. 영화를 감상한 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글들을 다시 옮겨오는 행동은 여론으로 형성된다. 소셜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을 표출하며 정보나 소통, 참여, 공유하는데 유용한 매체이다.<sup>22)</sup> 소셜미디어가 언론 매체만큼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 중 하나는 2011년 12월 공지영 작가의 트위터 논란이다. 아마도 한 개인의 소셜미디어가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킬

22) 조광형, 「문제인은 울보? ‘광해’ 보고 울고, ‘국제시장’ 보고 또 울고. ..」, 『뉴데일리』, 2015년 01월 30일.

23) 김대호 외,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1.

수 있는지 알게 해준 사례일 것이다. 이에 미디어 매체들은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를 잘 알기에 소셜에 관심을 가지며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예전의 미디어 정보 전달 방식이 일방적이고 단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미디어 매체의 범람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쌍방향 전달의 소통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미디어는 한편으로는 젊은 층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논쟁을 이끌어 갔다.<sup>24)</sup> 미디어에 의해 영화가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던 2010년 이후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두 편의 영화, 즉 2013년 개봉한 <변호인>과 2014년 개봉한 <국제시장>를 통해서 미디어와 정치 그리고 소셜 등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정치적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자.

### 1) <변호인>

2013년 12월에 <변호인>(양우석, 2013)이 개봉되었다. 대선 1주년에 맞춰 고 노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삼은 영화였다. 1981년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고문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과정을 그리면서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변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민주화 투사이거나 민주화에 노력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한 인간의 성공신화가 아니다. 현실에 안주해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따르는 정의로운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갖게 하였다. 거대권력에 맞선, 정의감 충만한 송우석(송강호)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결핍된 우리들의 지도자상이고 또한 동일시되고 싶은 캐릭터일 것이다. 이미 영화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

24) 조선일보 2014.12.29일 기사의 타이틀을 보면 「허지웅-듀나, “국제시장 역사의식 없어..”’, 변희재 “3류 영화평론가 도 넘었다.”」 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보수 논객의 강한 발언은 영화를 더욱 이슈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며 진보와 보수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는 미디어와 언론들은 색깔 논쟁을 벌이고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며 영화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다. 미디어 기사들은 영화가 사회를 변화발전시켜야 할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좌우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점을 표하며 영화를 점점 더 정치적으로 도구화하였다.<sup>25)</sup> 반면 ‘변호인’의 제작자는 <변호인>은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이야기”이며, 영화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제작자 입장에서 영화를 열심히 만든 스텝과 주인공 송우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영화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26)</sup> 양우석 감독도 정치라는 민감한 코드를 최대한 없애고 인권변호사로 변화해가는 주인공을 내세운 휴먼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다는 밝혔고, 이러한 그의 의지는 정치적 소재에 대해 관객이 반감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현실감과 공감대 형성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송우석의 명대사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한 줄의 대사를 위해 러닝타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이에 1,137만 명의 관객이 화답하였다.

## 2) <국제시장>

2014년 12월 개봉한 <국제시장>(윤제균, 2014)은 언론에 의한 정치적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변호인>보다 더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의 고된 삶과 역경의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하지만 보수의 입장에서 이 영화는 산업화와 아버지의 세대들의 희생적인 면을 보았다면, 진보의 입장은 근대사에 대한 냉철한 역사의식도 미흡하고 민주화의 희생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25) 최승현·김경화, 「홍행영화 인기에 슬쩍 올라타려는 與野」, 『프리미엄 조선』, 2014년 02월 15일.

26) 김성훈, 「이 영화의 변호인은 관객이다」, 『씨네21』, 2013년 12월 17일.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한 국가의 모습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미디어의 기사들은 한낱한시에 영화를 관람한 여당대표와 야당대표 선거에 나선 국회의원의 행보를 보도했다. 천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정치권의 관람이 영향을 미쳤고, 박대통령의 관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의 형태는 유사했고, 그 양은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정치색을 제외시켰다는 감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미화했다’, ‘민주화 과정을 뺐다’, ‘애국에 호소하는 보수주의 색채가 강하다.’ 라는 기사들이 오히려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 각각의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색깔을 입히며 영화를 미디어의 혼란 속으로 몰아갔다.

예컨대, 보수 미디어의 대표적인 조선닷컴 2015.01.03 일자의 기사 제목<sup>27)</sup>인 「국제시장 혈투는 左派(좌파)」는 “국제시장은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있다. 일부에서 영화에 대한 궤변을 쏟아내는 건 모처럼 이 세대 화합 분위기가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기사는 제목부터 화합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보 미디어의 대표적인 한겨레 2014. 12. 29 일자의 기사 제목<sup>28)</sup>을 보면 진보 논객이 했던 말을 기사 제목으로 「영화가 아니라 당신들 ‘정신 승리’ 가 토 나와」라는 표현으로 이 영화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의 미디어들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피력하며 이데올로기적 이념논쟁을 일삼는 행태는 영화를 만든 제작자나 감독 그리고 관객이 원하는 지점이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네 정치적 상황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화를 바라보기 보다는 영화의 대중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필요할 것이다.

---

27) 최승현, 「국제시장 혈투는 左派」, 『프리미엄 조선』, 2015년 01월 03일.  
 28) 박수진, 「영화가 아니라 당신들 ‘정신 승리’ 가 토 나와」, 『한겨레』, 2014년 12월 29일.

#### IV. 나오며

200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한국영화는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대중영화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영화가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영화법 폐지로 인해서 다양한 소재의 국가, 범죄, 역사 등을 다룬 영화가 나왔고, 웰 메이드(well made)영화는 관객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는 천만 관객 동원하며 할리우드 영화를 넘보며 급성장하였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영화 흥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홍보마케팅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표심잡기에 활용된 <화려한 휴가>, 장애아의 인권유린과 한국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준 <도가니>,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 담론을 재생산한 <26년>과 <광해> 등의 대중영화는 젊은 층이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특히 미디어 매체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정치적 관심은 소셜 미디어까지 확장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론화하여 일방적인 미디어 매체들의 보도형태인 단방향의 정보전달을 거부하며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 속에서 사회 약자와 부조리에 대한 사회 비판과 정치담론을 통해서 인권, 민주화, 정의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대중영화와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상이었다. 이처럼, 영화의 사회·정치성과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폭넓은 성찰을 유도하고 수많은 제안을 이끌어낸다. 특히 사회·정치적 재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며 종합적인 사유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오늘날 한국 대중영화는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관람 형태도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은 소셜 네트워크 통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한편 인터넷의 보급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쇄매체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자 이 자리를 미디어 매체들로 채워져 가면서 점점 더 경쟁적인 헤드라인 기사로 사회·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중영화는 우리 사회나 정치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속성처럼 영화는 점점 상품화되었고 정치, 사회, 역사 소재의 영화들은 대중잡지나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방송 3사의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다. 국내 최대 흥행을 기록한 <명량>이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미디어에 의해 사회·정치적으로 활용되고 변질되는 영화보거나 읽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세계영화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뤼미에르 형제가 언급한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다” 라는 말을 곱씹으며, 대중문화로서의 한국영화를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강주리, 「영화와 선거의 함수관계, 야당 부러진 화살 띄우기」, 『관혼저널』, 122호, 2012, p.103.
- 김규한, 「<실미도> 천만 관객시대를 열다」, 『맥스무비』, 2004년 02월 19일.
- 김대호 외,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1.
- 김병철,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빛과 그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학술정보』, 2005.
- 김성훈, 「이 영화의 변호인은 관객이다」, 『씨네21』, 2013년 12월 17일.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p.24.
- 박수진, 「영화가 아니라 당신들 ‘정신 승리’ 가 토 나와」, 『한겨레』, 2014년 12월 29일.
- 박종성, 『정치와 영화』, 인간사랑, 1999, p.11.
- 박주연, 「영화 ‘실미도’ 어디까지 진짜야」, 『주간경향』, 2004년 01월 29일.

- 송현경, 「범여권에 ‘화려한 휴가’가 있다면 이명박에겐 ‘브라보 마 이라이프’ 있다?», 『내일신문』, 2007년 09월 07일.
- 원미란, “영상물등급제도 및 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p.21.
- 유재혁, 「<태극기 휘날리며> : 제작비 170억. 총440곳», 『한국경제』, 2004년 02월 05일.
- 이성욱·목혜정,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 영화 <부러진 화살>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2 상반기 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12. pp.145-156.
- 이희승,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식민주의적 욕망」, 『영상기술연구』, 2010, pp.65-90.
- 임범, 「‘그때 그 사람들’ 3장면 삭제결정, 다큐 가위질」, 『한겨레』, 2005년 01월 31일.
- 조광형, 「문재인은 울보? ‘광해’ 보고 울고, ‘국제시장’ 보고 또 울고...」, 『뉴데일리』, 2015년 01월 30일.
- 존 스토리, 박만준 역,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경문사, 2002, pp.4-5.
- 최봉현 외,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영화진흥위원회』, 2005, p.83.
- 최승현, 「국제시장 혈투는 左派」, 『프리미엄 조선』, 2015년 01월 03일.
- 최승현·김경화, 「홍행영화 인기에 슬쩍 올라타려는 興野」, 『프리미엄 조선』, 2014년 02월 15일.
- 프란체스코 카세티, 김길훈/김덕수/김건 역, 『현대영화이론 : 1945-1995년의 영화이론』, 한국문화사, 2012, p.152.
- 피에르 솔랭, 정진혁 역, 『유럽영화와 유럽사회 : 1939-1990』, 도서출판 씨앗가게, 2000, pp.14-15.



## ABSTRACT

### Study on the Media Phenomenon and Social & Political Discourse in 2000s Korean Public Movie

KIM, Min-Soo · Han, Hwa-Sung · Kim, Geon

In the 2000s, Korean cinema maintained the industrial growth on the strength of 10 million audiences and the successful Korean blockbuster. A variety of film materials such as history, politics, social issues, and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deology were addressed in the movies, and one of the movies based on a true story was popular. Accordingly, external size of the film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Korean public movies have a firm position in the film market, and a diversity of discussion is made as the movies spontaneously get attention. Also,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and media which recognized far-reaching powers of public films causes a political and social change, but it also provokes ideology controversy.

Objectivity of this study is first to discuss factors and initiating causes that Korean movies have firmly settled as public movies since late 1990s. Secondly, this study considers relation among media, social media, and Korean public film that aroused more arguments on politics, society, and history in 2000s. The powerful influence of films on society not only leads political change but also affects awareness change of audience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Key Word : Public Movie, 10-million-viewer film, Film & Society, Political Film & Media, Social Media

김민수(제1저자)  
충부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강사  
(32713)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holala@naver.com

한화성(공동저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화예술과 교수  
(1751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한강 우성아파트 108동 1501호  
mars0623@dima.ac.kr

김건(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godardkim@jbnu.ac.kr

논문투고일 : 2016.01.31.

심사종료일 : 2016.02.25.

게재확정일 : 2016.03.03.